

집중취재

우유로 전한 사랑

- 소년원 학교·NH농협은행, 사랑의 우유 기증식 가져-



2025. 11. 26.(수) 오후, 서울소년원은 NH농협은행과 ‘소년원 학교·NH농협은행 사랑의 우유 기증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서울소년원 포함 전국 11개의 소년보호기관의 학생들에게 5천만 원 상당의 우유를 지원함으로써 소년원 학생들을 격려하고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되었으며, 이날 행사에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이영면 국장, 서울소년원장 윤태영, 소년보호과 오상섭 과장, NH농협은행 공공금융부문 백남성 부행장 등 1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은 감사패 전달

행사는 서울소년원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사랑의 우유 기증 증서 전달식과 함께 NH농협은행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감사패 전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감사패에는 우유를 형상시키는 각인을 통해 행사의 의미를 더욱 극대화하였으며, 이를 수상한 백남성 부행장이 미소로 화답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였습니다.

또 한번의 약속

행사 이후에는 시설 참관이 진행되었고, 행사 관계자들은 생활관 및 교육관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학생들의 생활 실태를 확인하였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NH농협은행 백남성 부행장은 “성장이 청소년들에게 작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며, 앞으로도 소년원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법무부와 NH농협은행 상호 간 협력으로 자라나는 보호소년 학생들에게 균형 있는 영양 섭취와 식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각 기관은 앞으로도 보호소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약속하는 것을 끝으로 행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끝으로 행사를 주관한 서울소년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러한 행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보호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집중취재

어디라도 찾아가는 법교육 - 섬마을 청소년 1,000명을 만나다-



5일간의 여정, '천사의 섬'부터 '땅끝 마을'까지

법무부는 모두에게 평등한 법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올해 8월 25일부터 5일간 신안 하의도 (천사의 섬)를 시작으로 완도 보길도, 소안도를 거쳐 해남 땅끝 마을까지 도서벽지 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어디라도 찾아가는 법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참여형' 교육

이번 교육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마약예방 ▲학교폭력예방 ▲디지털성범죄예방 등의 주제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강의를 맡은 법학 전공 법교육 전문강사*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이로운법** 홈페이지에 수록된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고 토론과 발표, 퀴즈 등 참여형 수업으로 진행하여 교육의 실효성도 높였습니다.

*법교육 전문강사 :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이론과 시연을 평가하여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자로, 청소년 및 일반국민 대상으로 법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

**이로운법(www.lawncorder.go.kr) : 국민에게 법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법무부의 법교육 온라인 플랫폼

미래를 향한 약속

법무부는 올해 초·중학교 276개교, 914학급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실시했으며, 내년에는 학교 헌법교육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대상 학교급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이 준법의식을 갖춘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우리가 함께 할게

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김태연

첫 만남

“우리 엄마는요, 나한테 너무 잘해주고, 친절해요. 일을 하느라 시간이 많지 않지만 날보고 많이 웃어주고 나를 사랑해요. 난 엄마가 참 좋아요.”

상습 절도로 상담조사 의뢰를 받은 초등학교 5학년 서우(남, 11세, 가명)는 교육 중 진행된 개별 심리상담에서 한껏 들뜬 목소리로 엄마가 서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신이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에는 남자 아이의 천진난만함 이외에 다른 것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서우에게 있었던 일

그런데, 교육 첫 날 서우를 데리러 온 할머니로부터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우가 4학년 때 우울증을 앓던 엄마가 집 욕실에서 자살을 했고, 그 모습을 처음 발견한 서우가 엄마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빠마저 양육을 포기하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서우 가족은 긴급생계비와 대출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서우의 할머니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서우 형제의 비행 때문에 힘겨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작은 나눔, 그리고 동행

이렇듯, 환경적·정신적·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서우의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 예방을 위해 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직원 회의를 거쳐 서우에 대해 지원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원금을 전달받은 서우 할머니는 ‘아이들이 한창 클 나이에 제대로 먹이지 못했는데, 고기를 사서 먹이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합니다.

또한, 서우 가족이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할 주민센터에 지원을 요청하고, 엄마의 죽음으로 큰 충격을 받은 서우를 심리상담 전문기관에 연계하여 1년 간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의 작은 나눔과 관심이 서우의 변화를 이끌길 바라며...

앞으로도 위기 청소년들이 변화의 첫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그 길을 함께 하겠습니다.

핫 포커스

닫힌 공간에서 열린 마음으로 - 국립법무병원 긍정심리치료 프로그램 활용 안내-



국립법무병원 임상심리실에서는 정신질환 범죄자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해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기 시작 전 치료자는 이런 질문으로 회기를 열곤 합니다.

“지난 한 주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환자들은 비슷한 대답을 하곤 합니다. “그냥 지냈어요.” “무로했어요.” “딱히 한 게 없어요.” “의미 없이 시간만 보냈어요.”

이는 병동 생활에 대한 환자들의 인식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우리 일상은 매일 흥미진진하거나 특별한 이벤트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반복되는 일상을 시시하고 무료하게만 여기기보다, 그 속에서 긍정적 면을 바라보고 감사의 마음을 갖는 순간 우리는 삶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가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이에 임상심리실은 부정적 증상을 줄이는 접근을 넘어, 환자들이 일상에서 의미·감사·긍정의 순간을 직접 알아차리고 경험하도록 돕는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15년에 긍정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현재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환자들의 특성과 병원 환경을 반영하여 5차례 개정하였고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긍정심리치료의 세 가지 전략

① 긍정정서 활성화: 회복의 기초 체력 만들기

회기 초반에는 즐거움·감사·흥미처럼 소소한 긍정 정서를 직접 느낄 수 있는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긍정 단어 찾기, 짧은 유쾌한 활동, 일상에서 좋았던 순간을 돌아보는 과제를 통해 환자들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② 강점 탐색: 내 안의 힘 다시 발견하기

강점 탐색 회기는 카드·워크북·실천과제로 자신의 강점을 찾고 활용하도록 구성했습니다. 개인 강점을 선정하고, 병동 생활에서 적용해보는 활동을 통해 강점을 재발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③ 긍정적 상호작용: 회복 기반 다지기

칭찬하기, 감사 편지 전달하기, 미소 상장 수여하기 등 일상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소통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고마움을 표현하고 서로의 긍정적 행동을 칭찬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자연스럽게 늘어났습니다.

병동에 스며든 일상의 긍정

개정된 긍정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의 일상 속에서 작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감사일기, 감사편지, 미소상장은 병동 분위기를 훈훈하게 바꾸는 의미있는 활동이었습니다.

“그냥 지나친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고마운 게 있었네요”: 감사일기

감사일기는 하루 중 좋았던 일, 도움을 받았던 순간, 편안했던 장면을 적어보는 활동입니다. 초기에는 “쓸 게 없다.”고 망설이던 환자들도 짧은 문장으로라도 자신의 하루를 적기 시작했고, 적다 보니 제가 생각보다 많은 걸 느끼고 지냈더라며 스스로 놀라기도 했습니다.

“제가 쓴 편지를 상대가 읽고 웃는 걸 보니, 제 기분도 좋아졌어요”: 감사편지 전달하기

감사 편지는 병동 생활 중 감사했던 순간을 떠올려 편지로 전하는 활동입니다. 스스로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던 환자들도 편지를 작성하며 차분하게 감정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감사 편지는 단순한 활동을 넘어 병동 안에서 긍정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작은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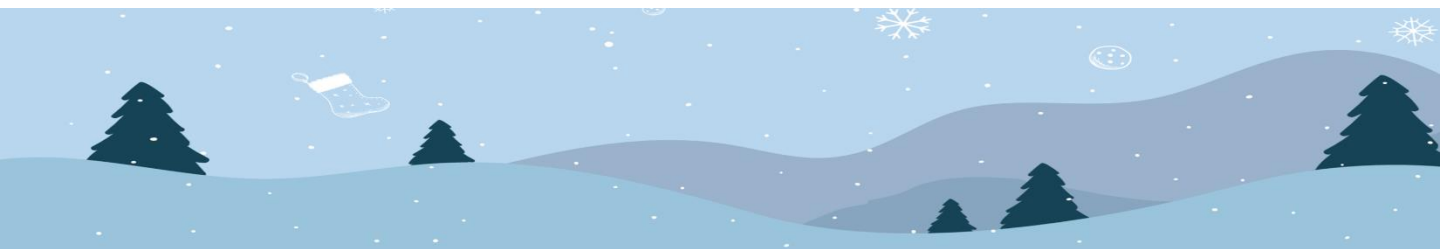
“부끄러웠는데... 막상 주고 나니 괜찮더라고요”: 미소상장

미소상장은 병동에서 진심 어린 웃음을 잘 짓는 이에게 환자가 직접 상장을 적어 건네는 활동입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상장을 주는 것을 쑥스러워 했지만, 상장을 건네고 나서는 표정이 달라졌으며, 짧은 활동이지만 병동 안에서 상대방의 ‘좋은 점을 찾아보고 표현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긍정심리치료 프로그램 활용 안내

개발 당시 적용 대상자는 범법 정신질환자였으나, 보호관찰소나 소년원의 정신질환자의 교육 및 치료 시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상동기 범죄, 선별과 집중관리로 재범차단



법무부는 보호관찰 대상자 중 이상동기 범죄의 잠재적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9월 16일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체계적으로 선별

법무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검사 도구를 개발하여 보호관찰 대상자 중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을 선별합니다.

치료적 개입 및 맞춤형 관리로 재범 차단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으로 분류된 대상자들은 정신적·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준수 사항이 추가로 신청되고, 치료내역 및 처방약 복용 여부 확인 등 강화된 지도감독을 받게 됩니다.

보호관찰 종료 후 통보

보호관찰이 종료된 후에도 경찰의 관리가 필요한 위험군은 인적사항 등을 경찰에 통보하며, 경찰은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이상동기 범죄 고위험군의 주거정보 등을 지역별 범죄 위험도 예측, 순찰 경로 조정 등 선제적인 범죄예방 활동에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협력 체계는 법무부와 경찰청이 각자의 전문 영역을 넘어 국민 안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현장통신

법무부장관, 서울보호관찰소·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정책현장 방문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지난 11월 14일(금) 서울보호관찰소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하여 보호관찰, 전자감독 등 범죄예방정책 집행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법무부는 정성호 장관 취임 이래 이상동기 범죄 집중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스토킹 등 가해자 접근 시 피해자가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국민 안전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에 집중해 왔습니다.

이번 방문은 보호관찰, 전자감독 대상자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현장 실무자들의 목소리를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이날 이상동기 범죄자 관리현황, 마약류 사범의 약물검사 및 치료·상담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소년 대상자의 외출제한 집행방법 점검 등 업무 전반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는 전자감독 대상자 관제 상황, 경보 대응 체계, 스토킹범죄 등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점검하며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이 자리에서 “범죄율이 조금만 떨어져도 엄청난 사회적 비용들을 절약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현장통신

2025 범죄예방대상 시상식' 개최

-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법질서에 기여한 33명에게 정부포상 등 수여 -

2025 범죄예방대상 시상식 축사

법무부장관



범죄예방대상 시상식

일자: 2025. 11. 19(목) 장소: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 주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법무부는 지난 11월 19일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평소 남다른 열정과 헌신으로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자원봉사자 및 단체, 직원 등 33명을 대상으로 범죄예방대상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정부포상 19명, 장관표창 12명, 장관상 2명

이날 시상식에서는 소년원 학생의 상담지도와 취업지도를 통해 청소년 선도에 기여한 안윤근 소년보호위원과 출소자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정착에 기여한 박선자 법무보호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하였고, 보호소년의 인권 보장과 안정적 사회정착에 기여한 (사)한국나눔연맹이 대통령표창을, 취약지구 CCTV 확대, 보안등 설치 등 범죄예방 인프라를 확충한 서울시 강동구와 제주도가 대통령표창과 국무총리표창을 각각 수상하는 등 보호관찰·소년보호·법무보호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민간자원봉사자 등 총 33명(단체 3개 포함)이 정부포상 및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우수직원상 수상자

올해 보호기관 우수공무원으로는 지자체·정신병원 등과 협업하여 정신질환이 있는 보호소년의 치료환경을 개선한 보호주사보 김경미가 대통령표창을, 전자감독 대상자 맞춤형 준수사항 신청을 통해 재범억제에 기여한 보호주사 김태경과 직업훈련을 통해 소년원 학생의 원만한 사회 적응을 도운 전문경력관 신란주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여러분들의 따뜻한 손길이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시고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함께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현장통신

2025년 한국보호관찰학회 추계 학술대회 개최



‘단기자유형 대체수단으로서 전자감독제도의 새로운 방향모색’

한국보호관찰학회는 2025. 11. 28.(금) 13:30 서울보호관찰소에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추계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교수, 연구원 등 학계의 형사정책 전문가와 법무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단기자유형 대체수단으로서 전자감독제도의 새로운 방향모색’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보호관찰학회 홍영오 회장은 개회사에서 “가택구금제도는 기존의 구금방식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범죄예방과 재활의 측면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또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사회안전을 지키려는 중요한 균형을 맞추고자 법적, 사회적, 정책적 차원에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발표자로 나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영중 박사는 ‘우리나라 가택구금제도 입법추진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가택구금제도의 입법론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적용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고, 동국대 조운오 교수는 ‘해외사례를 통해 본 가택구금제도의 국내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다른 나라의 가택구금제도를 분석하고 과밀 수용에 대한 형사사법적 고찰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이영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축사를 통해 ‘가택구금 등 오늘 개최된 학술대회가 형사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이에 맞춰 통해 논의된 다양한 시각과 아이디어들을 보호관찰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장통신

사진으로 보는 2025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

